

공항철도의 즐거움

병영칼럼



황 인
미술평론가

“프랑스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여도 / 프랑스는 너무도 멀다 / 아쉬운 대로 새 양복을 입고서 / 무작정 여행길에 나서자. // 기차가 산길을 지날 때 / 물빛 창문에 기대어 / 나 홀로 즐거운 일을 떠올려 보자 / 5월 이른 새벽에 / 어린씩 읊트는 듯한 마음 인 채.”(하기와라 사쿠타로, 여상(旅上))

100년 전의 시다. 당시 프랑스에 가려면 배를 타야만 했다.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수에즈 운하를 거쳐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항로였다.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열두 시간이면 파리에 도착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100년 전 시인의 마음처럼 여전히 너무나 멀다.

여행은 즐겁다. 해외여행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아무 데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통이 발달한 요즘도 해외여행은 만만하지가 않다. 돈과 시간과 체력이 다 필요하다. 이걸 다 갖춘 경우는 드물다. 일상 속에서 해외여행의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공항철도를 타면 된다.

공항철도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이다. 해외여행객과 김포·인천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들이 이용한다. 운임은 일반 지하철과 같다. 게다가 고속으로 달리니 가성비가 월등하다. 피부 빛깔과 언어가 다른 세계인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일반적인 노선의 지하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여러 나라를 오가는 국제열차를 방불케 한다. 여행객들이 들고 온 배낭이나 캐리어가 객실을 메운다.

한국이 처음인 여행객들의 표정은 진지하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생명각각의 몸짓과 표정이 나온다. 한강을 지날 땐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 한강 상류의 여의도 빌딩 숲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멀리서 매력적인 풍광의 북한산이 나타나면 지리학을 공부하는 눈빛이 된다. 헤드폰을 끼고선 음악 삼매경에 빠진 도시풍의 여행객이 있는가 하면, 틈틈이 여행 안내서를 꺼내 놓고 일정을 챙기는 부지런한 여행객도 있다. 열심히 구글링하며 서울의 여행정보를 얻는 신감각파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열차는 김포공항에 와서 여행객을 더 태운다. 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이다. 그리고 흥대입구역을 거쳐 종점인 서울역에 정차한다. 흥대입구역에서는 많은 숫자의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내린다. 다들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자신감이 넘쳐 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사람, 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들이 출발했던 여러 도시의 공기는 몸의 옷 속에 품어진 채 공항철도에 실려 서울의 대기 속으로 스며든다. 서울에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된다.

세계적인 핫 플레이스인 경의선 숲길 공원은 당일 도착한 젊은 해외여행객들의 열기로 뜨겁다.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캔맥주를 마시며 황홀한 서울의 여름밤을 만끽한다. 일상이 답답하고 지루하다면 짬을 내어 슬쩍 이들의 열기에 합류하는 것도 좋다.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할 만한 돈과 시간에 적극적인 몸과 풍부한 상상력을 더하여 파리와 뉴욕, 도쿄 등 먼 곳을 실감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 편집=전옥신 기자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통해 본 안전불감증

문화산책



노미경
세계여행전문가

몇 해 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야경을 보기 위해 옵션으로 유람선을 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내린 비로 센강 수위가 올라가 있어 프랑스 정부에서 유람선 운항을 중지시켰던 적이 있다. 당시는 유람선을 못 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센강의 경우 조금만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을 위해서 모든 유람선 운항을 정지시키고 또 유람선 회사에서도 운항하지 않는다.

최근 자유여행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패키지 여행이 대세다. 패키지 여행의 특성상 정해진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를 한꺼번에 돌아보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보니 여행자로서는 주어진 일정을 다 소화해야 하므로 시

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여행을 포기할 줄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성격 급한 우리나라 여행자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국외 출국자 수는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이제 거의 300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은 아직 과거 그대로다.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행지별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그 나라와의 긴밀한 상호 보안 관계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지역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여행지에서도 안전불감증을 가진다면 위험은 곳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여행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는 이와 같은 사고가 없기를 기원한다.

한국군은 정말 약해지고 있는가?

기고



오세진
트라이셀 로보틱스 연구소장

전투실현을 하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유해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을 때는 군의 엄정한 군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에서 GOP 통문을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이나, 우리 일행을 경호하는 병력에서 조금의 느슨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로는 최전방 철책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확인했다. 과거 장병들이 24시간 졸린 눈을 비비며 맨눈으로 감시하던 GOP 경계작전이 2016년 첨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철책에 광그물(광망)을 씌워 침입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보를 울리고, 감

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 등을 촘촘히 배치해 낮엔 1~2km, 밤엔 200~400m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를 중대와 대대 상황실 내부에서 병력이 여러 비디오 화면으로 과학화 감시장비를 조종하며 전방을 감시하고 있었다. 철책 같은 어둠에도 LED 경계등이 대낮처럼 밝히고 있고, 적외선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GOP 선상의 삼중 철책, 철책 앞으로 100m 이상 설치된 불모지 지대 그리고 쉽 없이 돌아가는 감시카메라 등을 볼 때 최근 북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육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최근 9·19 군사합의,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문화 개선 등으로 군사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지만, GOP 경계태세를 포함한 군사대비태세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금도 말은바 제자리에서 묵묵히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창간 1964. 11. 16

발행인 이봉우 편집인 이길호
대행편집장 유호상 편집팀장 이승복 취재팀장 이영선

등록일 2010. 7. 13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일간>

인쇄인 고광현

독자관리 | 발송문의(구독신청 |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우편번호:04353 서울시 용산구 두림비우로 54-99

부서 전화번호	디지털국방일보		편집		취재		광고문의
	디지털뉴스	국방저널	편집	교열	취재	사진	
일반	02)2079-3710-4	02)2079-3716-7	02)2079-3770-85	02)2079-3791-4	02)2079-3730-42	02)2079-3761-4	02)2079-3123
군	947-3710-4	947-3716-7	947-3770-85	947-3791-4	947-3730-42	947-3761-4	947-3123